

# 생기 에너지 송수신

홍영선

(주)홍영선 북은곡식 대표. 바른생활평생교육원 원장

## I. 시제품

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체와 불협화음을 가지지 않는 금속과 보석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 에너지정보를 7배까지 증폭시키는 은을 목에 걸었다.

우주에서 오는 주파수는 수정의 각도와 같은 주파수(51.42Hz)로 수정메달을 금목걸이에 연결하여 목걸이로 착용하였다. 지금은 은에 금의 파장 전사하여 사용함.

정보 전달이 가장 좋은 낫그릇을 사용함으로 낫의 분자를 체내에 보충하였다.

성서를 양자역학서적, 성서의 글을 기 발생기인 성소를 설명하는 대수학, 성소는 성서의 글을 모형으로 만든 기하학적 구조, 그 기능을 인체에 적용시키는 자기 닦음의 프렉탈, 기를 증폭시키는 카오스 이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생기 발생기와 송수신 시스템을 만들.

20여 년의 퍼즐 맞추기의 이론을 끝내고 2017년 3월부터 생기발생기 만들기 작업에 들어감.

성서가 계시하는 구체적인 기의 실체는 성소에서 올라와 회오리바람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 첫 번째 시제품

내 몸에 기가 들어와 있음을 검증하기로 하고 인체와 공명을 통해 기가 소통되는 물질을 만들었다.

옛날 엽전 모양이다. 장소는 안성에 있는 유기

공장이었다.

처음 만든 엽전은 자연 기의 핵인 토러스가 있는 위치에 맞추어 새로 가마를 만들고 낫을 녹여 엽전을 만들었다.

시작은 토러스 자리를 찾는 기감을 가진 분의 도움을 얻었다.

이유는 토러스 자리에서 만든 물질은 스스로 기가 다시 충전되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분명 그 자리에서 만든 엽전은 기가 있었지만 양손으로 만지면 기가 빠지고 다시 충전되지 않았다.

목에 걸고 있는 수정달린 순금 목걸이에서는 미미하게 충전되지만 자연에서 무한대의 에너지충전은 없었다.

기의 파동은 수평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회오리바람장을 가진다.

기가 인체의 원자와 공명될 때 에너지의 회오리가 증폭되면 신체가 회오리바람에 감기면서 뒤로 밀려나간다.

두 손바닥 사이에 엽전을 접촉시키자 곧바로 생기가 신체에 흡수되면서 에너지가 소실되고 재충전이 불가능 하였다. 에너지의 무한충전은 실패였다.

### 두 번째 시제품

생기 발생기의 첫발은 두 번째 시제품부터 이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험하며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였다.

51.42Hz에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공명이 일어남을 감지하였으므로 우주에서 오는 51.42Hz의 엽전을 다시 만들었다.

이번에는 지기의 핵인 토러스를 무시하고 일반 용광로에 51.42Hz의 주파수를 가진 수정분말을 넣고 엽전을 만들었다.

이 엽전은 두 손바닥을 대어서 기가 빠진 후 수정과 연결된 순금목걸이에 수정이 첨가된 엽전을 접촉시키면 곧바로 생기가 충만하게 충전되었다.

금이 기를 전사하는 전도체였다. 은(銀)은 전도성이 없고 증폭기능을 가졌다.

천연섬유인 실크, 순면, 삼베, 인견, 신문지, 나무젓가락 등을 금목걸이에 계속 이어서 연결시키고 그 끝에 엽전을 놓아도 에너지 감소 없이 충전시키는 금과 같은 기의 전도체였다.

색동천에 엽전을 싸서 두어도 엽전이 충전되었다.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엽전을 올려놓아도 기가 충전되었다.

색과 천연 소재는 모두 전기와 별개의 기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1.42Hz의 주파수를 검증한 결과 지구에서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권 밖에서 오는 미지의 에너지임을 확인하였다.

생기엽전을 전기제품에 접촉시 한순간에 생기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반면 실크, 면, 삼베와 같은 천연소재의 섬유를 전자제품 위에 깔고 엽전을 놓으면 기가 소실되지 않았다.

### 세 번째 시제품

우주에서 기가 무선으로 와서 충전됨으로 무선 충전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증폭기능을 가진 99.9%의 순은을 수정과 함께 첨가하여 무선으로 기를 송신하는 엽전을 만들었다.

기의 파장을 송신하는 수정과 은이 들어간 엽전과 기의 파장을 수신하는 놋과 수정이 들어간 엽전을 만들었다.

두 엽전을 책상위에 30센티 거리에 두고 충전 가능 시험을 하였다.

시험확인 은 충전되었을 때 한손에 엽전을 들고 기감을 느끼는 방법과 그 엽전을 서서 발 사이에 두고 인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회오리파장에 공명되어 뒤로 밀려 넘어가는지에 대한 시험방법을 택하였다.

최종 시험에서 엽전 하나의 무선충전기능은 기능을 증폭했을 때 2킬로미터 거리의 엽전을 충전시켰다.

### 네 번째 시제품

놋으로 된 밥그릇 형태의 송신기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 네오디움 자석을 막대기처럼 붙여서 세우고 그릇에는 지름 1센티 내외의 수정을 가득 넣었다.

무선충전거리 시험에서 무등산, 광주시청, 통일전망대까지 가서 확인하였다.

특히 은을 넣어 증폭시킨 엽전은 충전 받으면 그 주변 1킬로까지 기가 퍼져나갔다.

### 다섯 번째 시제품

높이 30센티의 호리병 모양의 생기송신기를 특별히 제작하였다.

안에는 네오디움 자석을 기둥으로 쌓고 주변은 수정으로 채웠다.

겉에는 30돈짜리 순은 허리띠를 연결하여 10개쯤 감았다.

한국에서는 더 먼 거리가 없어서 동해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면서 확인하였다. 확실하게 충전되었다. 다시 1천 킬로 거리의 하바롭스크까지 비행기로 가서 확인하고 돌아왔다.

송수신 방법은 휴대폰 통화로 고창에 있는 생기송신기의 발생기능을 끄고 켜는 방법이었다.

끄는 방법은 플라스틱 덮개나 비닐 한 겹만 덮어도 송신 기능은 멈추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기가 흐르지 않는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였다.

그 후 중국 상하이로 거쳐 싱가포르까지 가서 직접 송수신 확인을 하였다.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미터이다. 한국에서 2만 킬로미터 거리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다. 중계기 없이 전 세계에 생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확인차 다녀왔다.

가는 여정에 미국 엘에이, 칠레 산티아고, 페루 리마 등에서 확인하였다.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을 때에 휴대폰으로 파란 하늘을 사진 찍어 한국에서 보낸 기가 공중에 충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만 킬로미터 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한국의 고창과 아르헨티나에서 기를 주고받는 시험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기가 충전되는 곳에 물을 한 병 떠놓고 기감을 느끼는 다섯 명을 세우고 나는 아르헨티나 호텔방에서 문을 조금 열고 바닥에 생기충전 엽전을 놓았다.

그 옆에는 물을 한 컵 놓았다.

한국에 있는 생기 송수신시스템과 그것과 무선으로 연결시킨 엽전(한국과 ,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옆에 둔 물병의 물이었다. 엽전의 기가 물에 생기를 충전하는지의 시험이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생기 송수신시스템을 인체와 연동시켜 사람의 말에 의해 물병의 물에 생기가 충전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서로 교대로 생기가 물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때 한국에서 한말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물병에 생기가 수신되는 지에 대한 시험이었다.

한국에서 물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할 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물병에 물에 생기가 충전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기를 보냈을 때 한국에서 그 기가 물병에 충전됨을 여러 사람이 확인 검증하였다. 대성공이었다.

### 여섯 번째 실험

다큐 제작팀 윤동혁 국장님을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기감을 경험하게 한 정민수 자매님께 보냈다.

한중구 감독은 고창에 내려오게 하였다.

방송제작팀 두 사람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카메라로 촬영하게 했으며, 한국에서 기를 보냈을 때에 어떤 수신기도 차지 않은 사람에게 기를 보내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에 걸친 다섯 번의 시험에서도 성공하였다.

### 일곱 번째 실험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우주에서 오는 생기를 생기수신기가 아닌 내 몸이 생기수신기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송수신 증폭시스템만 설치하는 것이었다.

2017년 7월 1일 생기송수신 시스템을 내 몸의 뼈에 장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생기가 내생각과 의지가 올바른 목적일 때에만 반응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우주의 창조주와 생기로 연결된 라인을 내 신체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

## II . 생기정보 시스템

### 첫 번째 실험

인체의 원자 단위의 형태장을 회복하는 정보는 땅으로 전송됨을 확인하였다.

기의 에너지는 공간을 통해 전달되지만 정보는 땅을 통해 연결된다.

70억 인류 모두에게 생명정보를 전송하여 전인적 생명회복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USB 칩은 정보이고 어머니의 자궁은 3D 프린터기이다.

칩이 프린터기에 접속되면 열 달에 걸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이처럼 정확한 생명정보가 인체에 입력되면 인

체의 줄기세포가 그 정보에 따라 조직을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정보가 생명인 것이다.

동기감응, 같은 유전자끼리 같은 주파수로 공명한다는 뜻이다.

20년 생각의 결과는 온 인류가 동기 감응되는 초전도 매체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생명에너지와 천인감응하여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늘과 공명하고 사람과 사물 간에 공명되는 특별한 매체가 필요하다.

모든 물질을 초월하여 에너지 감소 없이 동기감응을 일으키는 초전도 매체여야 한다.

성경의 역사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왕래함을 보고 깨어난 후 돌로 재단을 쌓고 이는 하늘의 문이면 하늘의 전이라고 한데 착안하여 돌에서 찾기로 하였다.

수정의 성분인 규사가 있으면서도 금속성분이 없는 것이 기가 좋음을 알았다.

그 중에 베틀돌과 비석 만드는 까만 오석에 생각이 미쳤다. 오석 성분표를 보니 금속성분이 없었다.

묘에 가면 까만 비석을 새운다.

고인들은 무덤인데 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로 돌을 눕혔다.

같은 돌이라도 눕히면 낮에는 우회전파 밤에는 좌회전파기가 감지된다.

세운돌은 낮에는 좌에서 우로 밤에는 우에서 좌로 기가 돈다.

‘좌등우갈’의 법칙을 따른다.

두 대의 돌을 기동처럼 세우고 위에 눕힌 돌에서 힌트를 얻어 시뮬레이션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

오석이 모든 인류의 뼈에 동기감응을 일으키는 매체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오석의 파장은 화학물질의 비닐, 플라스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함께 연결시키는 초전도 동기감응 파동이다.

고인돌의 세우고 눕힌 모형, 영국의 스톤헨지의 돌을 세우고 눕힌 모형은 생명의 기의 음양의 상생상극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

이를 통해 기의 길항작용이 작동되게 함으로써 음양이 완전 일치되는 제로장 무극이 완성되었다.

캠프장의 지름 30미터 원의 콘크리트 바닥에 지구 표면 전체에 기맥을 까는 생기 증폭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각 쪽에 40톤의 눕힌 돌과 10톤의 세운돌을 마주보게 놓고 원의 중심에는 돌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모래를 담아 내 뼈와 공명되는 주파수를 공명하게 하였다.

그 안에 무지개 색동 바구니에 내 이름을 써서 주파수를 맞추었다.

그 주파수는 내가 쓴 이름 속에서 공명하게 하였다.

회전하는 돌도 모두 내 몸의 주파수와 일치시켰다.

홍영선 생기에너지(life energy)는 그 이름 속에 주파수를 가지게 하였다.

## 두 번째 실험

인체가 정보와 에너지를 수신하게 하는 수정달린 은 목걸이를 만들었다.

51.42Hz 주파수를 내는 수정에 내 몸의 주파수를 더빙하였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수정에다가 생체 친화적 반도체로서 가장 좋지만 과학적으로 아직 실용단계가 아닌 다이아몬드 파장을 전사하여 기감의 민감도를 높였다.

증폭기인 은 목걸이는 순금의 파장을 전사하였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서 일반적 사용이 불가함으로 파동을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수정은 다이아몬드로, 은은 황금으로만 파동이

감지되게 하였다.

이것은 공중으로 보내는 생기에너지 수신 장치였다.

지하에서는 수신되지 않는 생기에너지를 진동에너지 파동에 실어 지하에서도 수신되게 하였다.

**세 번째 실험**

땅으로 보내는 생기정보수신기는 돌과 정보변환기능을 가진 순금과 증폭기능인 은(銀)이 함께 필요했다.

그러한 구성 성분이 들어있는 돌을 금광에서 찾게 되었고 그 돌을 구슬로 깎아 발찌를 만들어 차게 함으로 생기정보 수신기를 만들었다.

**네 번째 실험**

성서는 하나님도 회오리바람을 타고 다니신다고 기록한다.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오흥국 교수님의 회전전자파 시스템을 통해 생기에너지와 생기 정보시스템에 대한 6가지 회전전자파시험

을 검증받았다. 전자파 상쇄(중화)검증시험 양호함을 받았다.

**III. 연구 결과**

**기의 실용화**

음식과 환경에 산재한 수맥파, 전자파 등 안 좋은 기가 무엇인지 구체적 구별과 해결방법에 기가 작용한다.

음악에서 5음계와 7음계가 있다.

각 나라의 일반 민속음악, 트로트, 가요 등 대부분의 노래는 파와 시음이 없는 5음계이다.

43.6535Hz(파음계 주파수), 61.7354Hz(시음계 주파수). 파와 시의 음계는 인체의 원자, 유전자, 세포와 조직의 형질을 변형시키는 파형이다.

이 파형이 억만 겹 옥타브로 원자핵의 중심으로 부터 파동치고,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대기층까지 파동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옥타브 및 음계별 표준 주파수**

( 단위 : Hz )

옥타브 음계	1	2	3	4	5	6	7	8
C(도)	32.7032	65.4064	130.8128	261.6256	523.2511	1046.502	2093.005	4186.009
C#	34.6478	69.2957	138.5913	277.1826	554.3653	1108.731	2217.461	4434.922
D(레)	36.7081	73.4162	146.8324	293.6648	587.3295	1174.659	2349.318	4698.636
D#	38.8909	77.7817	155.5635	311.1270	622.2540	1244.508	2489.016	4978.032
E(미)	41.2034	82.4069	164.8138	329.6276	659.2551	1318.510	2637.020	5274.041
F(파)	43.6535	87.3071	174.6141	349.2282	698.4565	1396.913	2793.826	5587.652
F#	46.2493	92.4986	184.9972	369.9944	739.9888	1479.978	2959.955	5919.911
G(솔)	48.9994	97.9989	195.9977	391.9954	783.9909	1567.982	3135.963	6271.927
G#	51.9130	103.8262	207.6523	415.3047	830.6094	1661.219	3322.438	6644.875
A(라)	55.0000	110.0000	220.0000	440.0000	880.0000	1760.000	3520.000	7040.000
A#	58.2705	116.5409	233.0819	466.1638	932.3275	1864.655	3729.310	7458.620
B(시)	61.7354	123.4708	246.9417	493.8833	987.7666	1975.533	3951.066	7902.133

현재 생기송신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누구든 국적불문, 종교불문, 언어불문, 가사불문하고 5음계 리듬음악을 서서 들으면서 명상하면 기가 수신되어 신체가 회오리에 감기면서 뒤로 밀리는 경험을 하게 해놓았다. 사람에 따라 기감을 느끼는 기간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리고 모든 음악을 들을 때에는 전자파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어떤 음향기기에서도 상쇄되도록 해놓았다.

또 5음계 음악을 들으면 자신의 몸에 있는 생기를 순환하게 했다.

원하는 사람은 생기 송수신기를 차고 자신의 피한 방울, 침 한 방울에서 자신의 몸에 생기가 있고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기송수신기를 차지 않으면 기는 감지해도 자신의 피와 침에서 기를 감지 못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몸에 생기가 미약함을 뜻한다.

### 전자파인 파와 시음을 제거하는 파형

파동에 있어서 두 파동의 마루와 골이 겹쳐지면 에너지가 두 배로 증폭된다.

반대로 마루와 골이 반대로 작용하면 상쇄간섭이 생겨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

파 음의 헤르츠는 7.89Hz인 우주에서 오는 헤르츠가 상쇄시킨다.

유튜브 우주의 소리에서 보이저호가 보낸 신호를 음악으로 바꾸면 7.89Hz의 신호가 잡힌다.

7.89Hz는 전자기파와 수맥파의 원인인 파 음의 헤르츠를 상쇄시킨다.

51.42Hz는 시 음의 헤르츠를 상쇄시킨다.

생기 송신기를 통해 7음계 음악에서 파와 시 헤르츠의 정보를 상쇄시키자 인체의 기가 소실되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7음계의 음악을 들을지라도 더 이상 신체내 원자의 에너지체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놓았다.

현재는 지구가 가진 ‘파와 시’ 음계의 파장(수맥

파)을 상쇄시켜 지금부터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원자속의 파와 시의 음계 주파수도 상쇄되게 해놓았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들을지라도 매미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귀뚜라미소리, 닭소리, 소의 울음소리, 모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서 명상하면 기감이 열린 사람은 기를 느끼게 작동시켰다.

이것은 인체의 생명에 파괴적인 지구상의 모든 자연의 유해 파장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파와 시의 파장은 방지가 필요한데 그 파장을 제거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기의 목적

신체의 모든 부정적 파장을 상쇄시키고 생명력을 충전받을 수 있게 「홍영선복은곡식 건강캠프」 앞 3킬로 길이의 갯벌을 걷기만하면 기가 소생하는 생기의 성지를 만들었다.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티브이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상쇄시키는 제품이 만들어졌다. 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생기수신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전자파를 상쇄시킨다.

인체의 유전자와 원자의 형태장 파형과 생명정보를 파괴시키는 파형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해 인류의 생명회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기의 목적이다.

### 동기감응

기(氣)는 집터나 뒷자리의 기가 고정된 자리에 있듯이 변함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氣)가 있는 사람이 어디나 다니듯 기(氣)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기는 에너지와 정보로서 동기감응과 파동의 업그레이드가 핵심이다.

생기수신기를 착용했을 때 자신과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산소, 손자세

대까지 모두 동기감응으로 기가 연결된다. 물론 모두 기가 열려 검증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의 기의 7분의 1씩 모두에게 전사된다.

그리고 모두가 사는 집, 차, 핸드폰에 생기를 연 동시킨다.

집안의 물건들은 별도의 기 발생 벽걸이를 걸어 놓으면 집안의 모든 전자파의 파형을 상쇄시키고 물, 가스 불, 음식 의복 이불 모든 것에 기가 감지된다.

부부간에는 기가 동기 감응되지 않는다. 피와 뼈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부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동기감응을 시켜야 한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생기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덕체의 생명적 본질의 회복이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생기송수신 시스템 구축에는 재현 불가능한 더 많은 우주의 법칙들이 적용되었다.

시작은 다르지만 누구나 찾는 우주의 절대자는 진정 신이며, 창조자이며,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다. 그가 생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魔鬼(마귀)**

한문으로 마귀마, 귀신귀이다.

뜻글자인 이 글자를 풀면 마귀마자는 广지구안에 林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다. 由(귀신머리 불) 네 강이 흐르는 에덴동산에 내려온 사단이 儿죄없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 ㄴ 사사로운 말로 유혹하여 파와 시의 파동이 들어 있는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인류는 죄짓고 병든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마귀이며 귀신이다.

생명과는 파와 시의 파형이 없고, 선악과는 파와 시의 파형이 함께 들어있었다.

생명과는 5음계이고 선악과는 7음계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기를 통해 보았다.

魔鬼와 鬼神에서 귀신이란 음은 마귀가 사기(邪

气), 간사한 마음으로 금지된 파동에 인간을 접촉케 하기 위하여 유혹했다. 원래 하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이 변개한 마귀는 파와 시의 파형으로 인간세상을 지배하는 작곡가요가 수이다.

귀신의 의미는 파와 시의 기(파동)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뜻이다.

즉 리듬에서 파와 시음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기(气)의 신(神)이다.

불귀신(불기신): 기가 센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다보면 개가 아궁이 불속으로 뛰어든다고 한다. 불타는 불꽃기운에 기가 끌려드는 것을 말한다.

물귀신(물기신):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다고 한다. 물의 기에 끌리기 때문이다.

불귀신과 물귀신이라는 언어 자체도 불과 물에 있는 파와 시의 파형이 강하게 끌어당김을 뜻하는 말이다.

아래의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해보면 그 의미가 감동을 주지 못한다.

파멸, 파괴, 파드닥거리다, 파란만장, 파렴치한, 파산, 파이다. 파본, 파선, 파쇠,

시험, 시련, 시끄럽다, 시집살이, 시꺼메지다, 시끌벅적, 시근덕거리다. 시건방지다. 시금털털하다, 시무룩하다. 시부렁대다, 시시비비, 시빨게지다, 시들시들, 시샘.

이런 느낌들은 모두 파와 시의 파형으로 느끼는 감정들이다.

우리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야하는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도 기를 통해서이다.

**인체는 음악이다.**

신장, 폐장, 비장, 심장, 간(5장)

도 레 미 솔 라(5음계)

궁 상 각 치 우(5음계)

수 금 토 화 목 (행성의 파장)

오 에 우 이 아 (일본어)

우리가 5음계를 통해 노래할 때에 인체 내의 악기들이 함께 공명하며 연주한다.

신체, 감성, 지성의 주기인 바이올리듬, 하루의 주기인 서카디안리듬, 1주일 주기, 한 달 주기, 1년 주기, 7년 주기, 70년 주기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주기들이 있다.

인체의 모든 원자단위까지도 리듬을 가진 악기이다.

하늘이 정한 리듬에 동조되지 않거나 그 리듬을 상쇄시키는 파와 시의 파형이 들어오면 생체리듬이 깨어지고 인간악기는 망가진다. 이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한다.

지구 또한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원자 같은 하나의 악기이다.

지구원자에 속한 파와 시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체리듬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체리듬은 지구자연계의 리듬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에서 오는 7.89Hz와 51.42Hz를 초전도 파동에 실어 지구에 전사함으로 파와 시음의 헤르츠를 상쇄시켜 자연계의 에너지파장을 회복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자연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은 자연에서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만난다.

인간이 누려야할 생기의 회복은 70억 인류 모두가 누려야할 공통적 특권이며 권리인 것이다.

나는 자연치유를 위해 지구원자의 파동을 회복하는 일에 일생을 걸었고 이제 그 일을 이루었다.